

이대론 호남권 경제 붕괴...비수도권 중심 신균형 전략 절실

광주·전남 미래산업 육성 전략

광주·전남의 경제침체 상황은 수도권·충청권과 비교하면 참혹한 수준이다. 전국 대비 기준으로 지역 내 총생산을 봐도 광주·전남 경제의 심각한 침체 현상이 확연히 드러난다.

1987년과 2019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은 53.6%에서 57.6%로 증가했으며, 같은 기간 충청권도 10.7%에서 13.7%로 올라갔다. 하지만 광주·전남 등 호남권은 이 기간동안 되레 12.3%에서 9.7%로 감소했다. 호남권의 지역내 총생산을 전국 대비 비중으로 확대해 살펴보면 1987년 12.3%에서 2000년 11.2%, 2010년 10.7%, 2015년 10.1%, 2019년 9.7%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.

창업기업수도 수도권은 2016년 55.6%에서 2020년 59.0%로 증가했지만, 호남권은 9.4%에서 9.3%로 감소했다. 사업체 종사자수 역시 수도권은

총생산·창업기업·종사자·소득세

수도·충청권에 비해 참담한 수준

예타, 낙후도 반영 등 개혁 필요

지역간 연계·협력사업 발목 잡는

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도 시급

48.9%에서 51.1%로, 충청권도 9.4%에서 10.9%로 증가했지만 호남권만 10.1%에서 9.4%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.

산업이 침체하다 보니 지역별 소득세·법인세 세수도 전국 최저 수준이다. 2019년 기준 소득세는 수도권 62.1%, 부산·울산 등 동남권 11.2%, 대구·경북권 6.3%, 충청권 6.7%, 호남권 5.1%다. 법인세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. 수도권이 73.1%로 대부

분을 차지하고 있으며, 동남권 11.0%, 충청권 4.3%, 대구·경북권 4.1%순이다. 호남권은 3.2%로 전국 꼴찌를 면치 못했다. 호남권은 모든 경제지표에서 이미 충청권 하하고 경쟁이 안될 정도로 뒤지고 있다.

지역별 공장 등록현황(2017년 상반기 기준)도 수도권은 47.8%, 동남권 17.4%, 대구·경북권 12.0%, 충청권 11.4%, 호남권 9.1%였다.

경제전문가들은 갈수록 낙후하는 호남권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선 비수도권 중심의 신 균형성장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. 우선 기존 예비타당성(예타) 조사의 완전한 개혁이다. 예타 통과와 발목을 잡고 있는 지역낙후도 등을 오히려 지역 균형발전 항목에 포함하고, 높은 가산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.

또 2005년부터 신설돼 추진중인 초광역 연계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전면 손질도 요구된다. 정부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해 지역별 사업

을 지원하고 있는데, 지역별·부처별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지역 간 연계·협력사업 추진 시 공동재정 운용에 한계가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게 담당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. 다시 말해 수도권에 비해 모든 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끼리 협업을 통해 힘을 키우려 해도 재정문제부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.

이에 따라 지역 간 연계·협력사업 추진 시 공동재정 운용에 한계가 있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한계 극복을 위한 이른바 ‘초광역 협력계정’ 신설 등이 요구된다. 이 밖에도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는 지역산업 특별지원 정책 시행, 지역 주민주도·주민참여·주민체감 산업 정책 개발, 지역 산업 대전환 지원, 메가시티 전환에 대비한 지역 간 공동 대응체계 구축 지원 등을 건의하고 있다.

세계적으로도 비수도권 발전을 돕는 정책을 강화하고, 국가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정책들이 트렌드

로 자리 잡고 있다.

유럽연합은 ‘인터레그메드(Interreg MED)’ 프로그램 통해 상대적으로 변방인 지중해 근처 지역(국가)간 상호 연계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, 프랑스는 ‘엑스-마르세유 프로방스 메트로폴’ 정책으로 비수도권의 미래산업과 디지털 산업 활성화, 국민의 고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.

또 이탈리아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이동성과 접근성, 환경, 시민참여를 주요 테마로 정해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유도하고 있다.

영국은 광역벤처스터 지자체 연합기구를 구성해 디지털과 건강·생명·과학 등을 지역산업으로 육성 중이며, 호주는 남호주 8개 지역개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발전기금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인프라 개선 및 지역경제 성장을 돕고 있다. 인근 일본도 국가전략특구제도를 통해 각 지역별 대표 산업을 집중 지원 육성하고 있다.

/박진표 기자 lucky@kwangju.co.kr

민주 대선 후보 배우자들 광주서 뜨거운 ‘내조 경쟁’

이낙연·이재명·정세균 부인

김홍빈 대장 조문·간담회 소화

오늘 전주·익산 찾아 표심 잡기

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배우자들의 호남행 내조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.

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아내 김숙희씨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씨가 5일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에 마련된 고(故) 김홍빈 대장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.

김숙희씨는 이날 광주 동구 대인동 ‘천원 밥상’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김 대장의 분향소를 찾았다. 김씨는 이날 오후 1시께 분향소를 찾아 김 대장의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 뒤 분향소 내에 전시된 김홍빈 대장의 생전 모습을 살펴봤다.

9주째 광주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김숙희씨는 일주일에 2~3일씩 새벽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. 주로 남광주시장과 대인동의 ‘천원 식당’에서 일손을 거들며 서민들과의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있다. 특히 김씨는 최근 보육 문제와 관심을 갖고 보육 교사 등 보육 관계자들과 소통을 넓혀갈 계획일 것으로 알려졌다.

김혜경씨도 이날 오후 2시30분께 김 대장 분향소를 찾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“기념관 건립이 돼 많은 사람들이 김홍빈 대장의 업적을 기억하면 좋겠다”는 말을 전했다. 김씨는 지난달 24~25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처음 찾은데 이어 29일부터 2박3일 간의 일정으로 다시 광주·전남을 다시 찾은 뒤 이날 세 번째 광주를 찾았다.

이들 배우자들은 전복으로까지 보폭을 넓히며 내조 경쟁을 펼치고 있다.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는 이날 광주를 방문한 데 이어 곧바로 전주와 익산을



밥상물가 점검 나선 송영길 대표

며 수박을 살펴보고 있다.

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, 이개호 의원 등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밥상물가를 점검하

/연합뉴스

찾아 핵심 지지자와 청년·여성들을 두루 만나 민심을 청취했다. 김씨는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도내 핵심 지지자에 이어 청년·여성위원회 소속 당원들과 간담회를 하며 물밑 지원에 나섰다.

이낙연 전 대표의 아내 김숙희씨도 6일 오전 익산을 찾을 계획이다. 전북이 고향인 김씨는 이날 오전부터 익산에서 배식 봉사를 한 뒤 오후에는 당심·민심을 잡기 위한 비공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.

앞서 정세균 후보의 아내 최혜경씨도 지난 2일

광주를 찾아 2박3일 간 광폭 행보를 보였다. 최씨는 정 후보의 광주·전남 싱크탱크인 국민시대 광주·전남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데 이어 여성·청년들을 만나 전 총리의 지지를 당부했다.

이처럼 대권 후보 배우자들의 호남행이 잦은 것은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의 지지율이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, 이들의 내조 경쟁이 향후 경선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주목된다.

/최권일 기자 cki@kwangju.co.kr

이재명 28%·윤석열 22%·이낙연 10%

4개 기관 대선 적합도 조사

양자대결 이재명 42%·윤 35%

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 지사가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. 야권 선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국민의힘 입당 이후 상승세로 반전, 여야 대선레이스의 양강 체제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.

엠브레인퍼블릭·케이스탯리서치·코리아리서치·한국리서치가 지난 2~4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에게 조사한 결과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이 지사는 전주보다 3%포인트 오른 28%로 집계됐다. 윤 전 총장은 3%포인트 상승한 22%로 2위를 유지했다.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2%포인트 하락한 10%에 그쳤다.

이밖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4%, 최재형 전

감사원장 3%,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%,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2% 등이었다.

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이 지사가 42% 지지를 받으며 35%인 윤 전 총장을 꺾었다. 다만 2주 전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이 지사는 4%포인트 하락했고, 윤 전 총장은 2%포인트 상승했다. 윤 전 총장은 이낙연 전 대표와의 양자대결에는 37%로 이 전 대표(34%)에 앞섰다. 2주 전 조사에서 이 전 대표 42%, 윤 전 총장 34%였던 것에서 역전됐다.

후보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이 지사 32%, 윤 전 총장 28%, 이 전 대표 8% 등 순이었다. 이번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(NBS)의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 ±3.1% 포인트다.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. /연합뉴스

빅4 호감도, 윤석열-이재명-최재형-이낙연 順

리얼미터 조사

비호감도 최재형 가장 낮아

차기 대권주자 호감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두를 기록했다.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.

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3~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여야 주요 대선후보 4명의 개인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, 윤 전 총장이 46%를 기록했다.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 40.1%, 최재형 전 감사원장 39.4%, 더불어민주당

주당 이낙연 전 대표 37.9% 순이었다.

비호감도 조사에서는 이 전 대표가 57.1%로 가장 높았고, 이 지사(56.5%) 윤 전 총장(50%) 최 전 원장(46.8%) 순이었다.

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후보가 호감도보다는 비호감도가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. 비호감도가 가장 낮은 최 전 원장의 경우 ‘잘 모르겠다’는 응답이 유일하게 두 자릿수대인 13.8%를 기록했다.

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% 신뢰 수준에서 ±3.1%포인트다.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. /연합뉴스

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-중-116878호

단,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튼튼한 ‘척추’ 튼튼한 ‘관절’

바른자세, 꾸준한 운동, 세심한 관리로
튼튼한 ‘인생’ 튼튼하게 ‘즐기세요’

척추

무릎

어깨

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
첨단우리병원

대표전화 | 062) 970-6000
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~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!

모던

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

아파트, 빌라, 원룸, 주택, 상가건물, 대형빌딩 등(슬라브 목상) 시공

옥상지붕공사

슬라브 주택, 데스리 및 한옥 등은
칼라강판 지붕공사

옥상 스틸방수

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
겨울의 차가운 냉기!
여름의 뜨거운 열기!

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!

스틸방수시공모습

현재시공모습

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

디자인 등록 제30-0934833호
제30-0949873호

특허청

광주·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합니다.

모던건설 (트윈스틸) 시공 문의 062)531-3530, H. 010-9229-3530